

경불련 네팔에 구호센터 연다



경불련은 5월 10일 네팔에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개소식을 갖고 한국불교의 보시행을 실천한다.

부처님의 고향 네팔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국불교의 보시행이 시작된다.

경불련(사)이웃을 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97년부터 네팔 카만두 북쪽 끝동굴에 불사를 시작한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Bihani Basti)'이 5월 10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건평 3백60평 3층 건물중 1차로 1층이 완공된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개소식에는 네팔의 주요인사, 한국대사, 네팔 국왕의 왕사인 린 포체스님이 참석, 법문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보시할 예정이다.

'아침을 여는 마을' 5월 10일 개소 무료급식·의료·직업훈련 등 실시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한 무료급식, 병들어 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의료구호,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문맹자를 위한 교육용 네팔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직업훈련을 위해 미싱·목공예 실습장도 마련하여 6개월과정의 직업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 농업기술, 전자부품 수리등의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199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마을'을 운영하며 네팔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한 것이 처음이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1천여명의 한국불자들이 1억5천여만원을 십시일반으로 보시했다. 전체인공을 위해서는 2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동참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참비를 세우고 동참명부를 새길 계획이다.

김동훈이사장은 "네팔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있는 곳이지만 자체적인 산업기반이 전무하여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빈곤국가이다"며 "우리불자들이 더욱 정성을 다해 네팔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주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www.kim@buddhania.com)

해동용궁사 경로잔치 지역노인 5백명 초청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정암)는 17일 지역노인을 위한 연례인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23회째를 맞이하는 경로잔치에는 최현돌 기장군수, 김동주의원을 비롯하여 지역노인과 불자 5백여 명이 참석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현스님(밀양 선우사 주지)과 김강국씨가 출연하여 찬불가와 민요, 가요로 노인들에게 흥겨움을 주었다.

천미희 기자

불국사·대흥사 글짓기대회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와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는 9일과 10일 각각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불국사 제 14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청운교와 백운교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불국사박물관에 전시된다. 또 대흥사 제 5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김원우·이윤호 기자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기와불사에 동참. 청기외에 영어로 '엘리자베스'라고 서명했다(사진 위). 여왕은 또 주지 문인스님으로부터 '一念萬年去'라고 쓴 족자를 선물받고 기뻐했다(사진 아래).

영남불교대 법당·학사 낙성

5층 건물 시민선방·서점·예식장 등 갖춰

인터넷 대학도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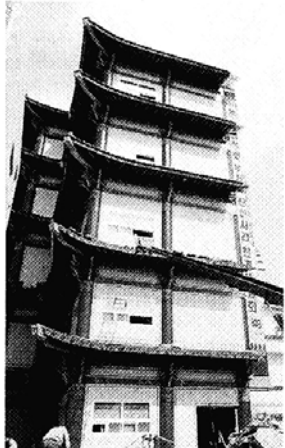
영남불교대학·관음사(주지 우학)는 5월 3일 신축법당 및 학사 준공법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준공 기념 특별행사기간을 마련한다.

신축건물은 대지 6백평에 건평 6백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이며, 식당 중무소 서점 시민선방 문화센터 강의실 법당 예식장이 들어서는 종합포교당이다.

특별주간 행사는 3일부터 13일간 성과 삼중 자광 목탁스님 박완일교수 등 초청 법사와 석학 강연을 펼친다. 이어 10일부터 대법당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5과 친견행사와 연례인 축하공연도 열린다.

또 3일부터 15일까지 신도증 증식 발급행사가 열리며 7일에는 헌혈행사가 8일 오전 11시에는 관내노인 5백여명 초청 경로잔치가 개최된다.

특히 10일 개관하는 문화센터는 생활전통요리 기예조 국악 수지침 한지공예 다도 불화그리기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이를 기념하여 17



영남불교대 신축학사 전경. 일터 이틀간은 연극 '목탁구명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공연된다. 한편 영남불교대학은 낙성식에 맞춰 인터넷불교대학도 개설해 첨단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불갑사 선원 개원 대범종 타종식도

영광 불갑사는 17일 선원개원식 및 1천관자리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불갑사 선원은 대지 3백평에 40평 활자집 양식으로 6명의 수행남자가 입방했다. 불갑사 선원은 6·25때 소실된 것을 복원했다. 천운스님(함림사 조실)은 법어에서 "백제불교가 처음 들어온 불갑사에서 5년에 걸쳐 불사한 선원을 거둔 것은 이 지역 불교의 부흥을 기약하는 것이다"며 "백제불교 성역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산스님(불갑사 조실) 다정스님(백양사주지) 김경철 영광군수, 안택수 영광경찰서장, 김규현 영광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주몽직 광주지사장



백제시대 불교 초전지로 알려진 불갑사에 지난 17일 선원이 설립 개원했다.

경주 제11회 총담제

한잔 차에 인민을 노래한 총담스님을 기리는 제11회 총담제(추진위원장 이임수, 동국대학교)가 18일 경주 계림사에서 열렸다.

한잔 차에 인민을 노래한 총담스님을 기리는 제11회 총담제(추진위원장 이임수, 동국대학교)가 18일 경주 계림사에서 열렸다.

이윤호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3천불자 수계

양산 통도사(주지 율파)는 22일 설법전에서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현산대중사를 계사로 20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진 금강계단 수계산람법회에는 3천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산람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 3차례씩 법회가 열리며 초우 스님(전 통도사주지) 지안스님(통도사 강주) 율파스님(통도사 주지)이 법문했다.

회합법회에서 현산계사는 법어를 통해 "일상속에서 수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하는 것이 수계를 받는 참의미이다"고 수계의 공덕과

의미를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대불청 경기회관 개원

법회·문화강좌 마련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문성열)가 5월 2일 오후 3시 경기 불교회관을 개원한다.

수원시청앞 성보빌딩에 자리한 경기불교회관은 총 40평규모로 대불청 경기지구 11개 청년회원들의 원거리회관에서는 앞으로 대중법회와 함께 불교사상강연회, 불교

및 문화강좌등이 개최된다.

김정은 기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문경 모전복지재단(관장 현관스님)은 5월 1일 오전 9시30분 제6회 시각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등반에는 시각장애인 1백여명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경새재 제 1관문에서 제 2관문까지 총 6.7km 구간에서 이뤄진다.

김길지는 점촌역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581) 555-0108

이윤호 기자

"아름다운 절 길이 추억에..."

영여왕 봉정사 참배...기와불사도 동참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현존 한국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국보15호)과 법고시연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영국여왕은 방한중인 21일 안동시를 방문,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봉정사와 유교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이날은 특히 여왕의 73번째 생일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2시45분 경 봉정사에 도착, 주지 문인스님과 총무 성목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며 대웅전앞에서 두손을 다스곳이 모은채 불상과 탱화등을 보며 "아주 아름다운 사찰로 길이길이 추억에 남을것"이라고 감탄. 특히 극락전을 보고는 "하나의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조각같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 극락전 앞뜰에서는 참배객들이 쌓아놓은 아담한 돌탑에 소원을 비는 들한개를 올려놓기도.

이어 여왕은 범종각과 만세루에서 타종과 법고시연을 관람했다.

불물이 한층온 산사의 정취를 배경으로 경건함과 힘을 갖춘 종교의식이 펼쳐지자 여왕은 크게 매료된 듯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인 경치"라며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왕은 이날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았다'는 글귀아래 영어로 '엘리자베스'라고 서명하고 청기외에도 같은 글씨로 서명했다.

여왕은 문인스님으로부터 족자 40cm, 길이1.5m크기의 족자를, 정동호 안동시장으로부터 하회탈(양반탈)을, 이천시로부터 청자화병을 선물받았으며 30여분 만에 봉정사를 떠났다.

문인스님은 "여왕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족자이다 조 사어록을 인용해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한 생각이 민선을 간다"라는 구절을 썼다"고 말했다.

천등산 봉정사는 의상대사가 682년 부석사에서 종이 불(鳳)을 날려서 내려앉은곳에 지었다는 절로 대웅전(보물55호) 화엄강당(보물448호) 고금당(보물449호)등 문화재가 많다.

또 얼마전 발견된 대웅전 벽화에서 대웅전의 건축연대가 극락전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단서가 발견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영여왕 봉정사 참배 화보 부디피어(www.buddhania.com)서 보세요.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즈드 김희경 합창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그날로 기치로 능력자가 된다.

레이키

수련을 한 일이 없는 사람도 그날부터 기치로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입니다. 이미 세계의 의료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 등의 나라에서 3백만명이 넘는 레이키요법(기치요법)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종합 병원들에서는 의학적인 치료와 레이키요법의 협진 체계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기와 정신세계의 관련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기공연구자입니다.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육성식 기공법을 찾아 해마다 1970년부터 레이키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도합 7~8차례 일본을 오고다면서 레이키의 아오키스젠, 레이키의 우에노신생, 가이레이키의 노사키신생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의 린 부드신생과 카와무리 신생, 영국의 미키트리스신생에서 일본고유의 전통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카부나(자비) 레이키법(정신면과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전수반)이 세계의 레이키법을 폭 넓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에노 레이키 마스터와 카부나 레이키 마스터를 겸하고 다재모능 레이키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늘려도 일취월장 향상하여 최근에 레이키법을 전수받은 부들에게는 더욱 높은 능력을 갖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임스

1. 어느 기공사(42세) 어플먼트를 받을 때 벽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니 그것이 몸의 중앙(중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진동은 더욱 깊은 층에서 일어났고 더욱 정밀한 파장으로 느껴졌다. 벽으로부터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이 몸의 안팎으로 마치 포복수 같이 흘러 내린 것을 느꼈다. 전수받고 난 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늘과 벽과 기의 기풍으로 이어진 느낌이 들었다.
2. 어느 기공 수련 6년차(64세) 어플먼트를 받음에 목적인 기운이 단전에 따뜻하게 전달되었다. 발목이 따뜻해지면서 단전에 모인 기운이 무릎을 통해 발끝으로 퍼져 나가는 데 이때 전에 있었던 무릎이 몸이 빠르해진 후 바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3. 어느 보살(48세) 어플먼트를 받은 순간 자색의 불길 같은 것이 하늘하는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 이마로 들어오는 듯하다니 몸 전체에 가늘게 전율이 일어났다. 제4상징과 만트라를 부여받고 백광과 오로라 모양의 빛의 난무 등을 비견해보자 보았다.
4. 어느 일본인 여성 레이키 마스터(36세) 어플먼트를 받음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듯하다니 그것이 점점 강렬해지면서 마치 꽃밭에 있는 것 같은 좋은 향내가 계속났다. 잠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더니 갑자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신 빛이 나타났다. 황금광, 금색광,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션빌딩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 ★ 야외장입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 ★ 경제적인 가격
- ★ 절친 상태(풀조 및 인쇄되지 않지 방식)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배내 완성

◆ 단별용(8cm, 10cm) ◆ 조립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현우기획